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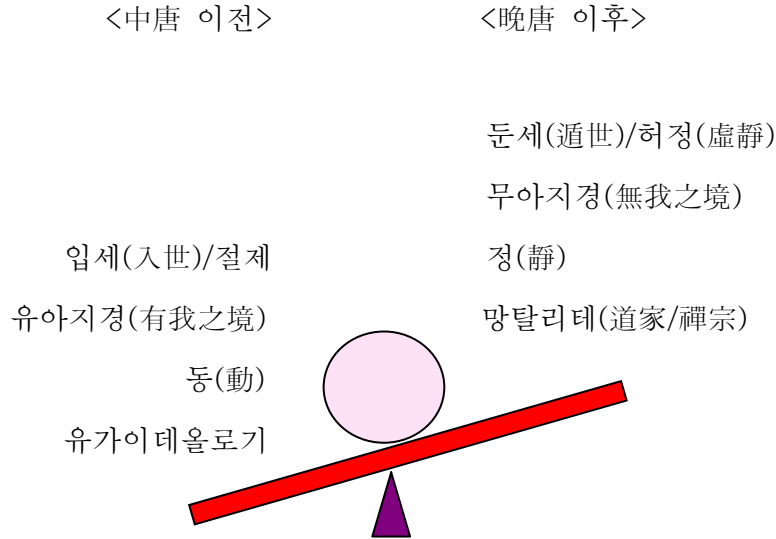
# 아이콘과 코드 - 동양미학의 범주 3강

## #5. 동정(動靜)

동(動)	정(靜)
喜怒哀樂有動於中	喜怒哀樂不生於心
유정(有情)	무정(無情)
유가	도가
절제 (“樂而不淫, 哀而不傷”)	초탈 <“척제현람(滌除玄覽)” · “심재(心齋)” · “좌망(坐忘)”>
유아지경(有我之境)<動에서 靜으로>	무아지경(無我之境)
입세(入世)	돈세(遁世)
우환의식<“發憤忘食” · “憂以天下”>	개인주의<弱者的 處世> “感而後應, 迫而後動, 不得已而後起.”(莊子) “後其身而身先, 外其身而身存.”(老子) “上善若水.”(老子)

# 아이콘과 코드 - 동양미학의 범주 3강

+ 지레의 比 (leverage)



\*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論語 · 雍也)

\* "仁者-山-靜-經", "智者-水-動-權"

+ 표층(表層)의 아이콘과 심층(深層)의 코드

아이콘	제1층	物象	표층	나무	빈집	山	水	...
	제2층	形象	표층과 심층 연결	枯	空	靜	動	...
코드	제3층	意象	심층	古 (보편적 항상성)	虛	仁 / 經	智 / 權	...

## 아이콘과 코드 - 동양미학의 범주 3강

+ 유가의 觀水와 도가의 隔水

孔子觀於東流之水. 子貢問於孔子曰: “君子之所以見大水必觀焉者, 是何?” 孔子曰: “夫水, 大偏與諸生而無爲也, 似德. 其流也埤下, 裾拘必循其理, 似義. 其洸洸乎不瀆盡, 似道. 若有決行之, 其應佚若聲響, 其赴百仞之谷不懼, 似勇. 主量必平, 似法. 盈不求概, 似正. 淖約微達, 似察. 以出以入, 以就鮮絜, 似善化. 其萬折也必東, 似志. 是故君子見大水必觀焉.”(『宥坐』)

공자(孔子)가 동쪽으로 흐르고 있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공(子貢)이 공자에게 물었다. “군자는 크게 흐르는 물을 보면 반드시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공자가 대답하였다. “강물은 여러 가지 생물들을 살아가게 하지만 그 어떤 작위(作爲)도 없으니, 이는 덕이 있는 사람과 같다. 그 흐름은 낮은 데로 흘러가지만 반드시 그 이치를 따르고 있으니, 이는 의로운 사람과 같다. 그 도도한 물결은 다함이 없으니, 이는 도를 깨우친 사람과 같다. 만약 강물을 터서 흘러가게 한다면 그에 따른 빠른 흐름이 소리의 울림처럼 용솨으며, 백 길의 낭떠러지에 들어선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는 용감한 사람과 같다. 움푹한 곳으로 흘러들면 반드시 평평해지니, 이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과 같다. 물이 찬 다음에도 위가 평평하니, 이는 올바른 사람과 같다. 어디에나 잘 젖어 스며드니, 이는 잘 살피는 사람과 같다. 들어섰다 나섰다 하면 깨끗해지니, 이는 잘 교화(教化)하는 사람과 같다. 강물은 이리저리 꺾이며 흐르지만 결국은 반드시 동쪽으로 흘러가니, 이는 마치 뜻이 굳건한 사람과 같다. 그러므로 군자는 크게 흐르는 물을 보면 반드시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 아이콘과 코드 - 동양미학의 범주 3강

## #6. 양강(陽剛) · 음유(陰柔)

### + 음양(陰陽) 관념의 형성과 발전

#### 1) 음양의 의미

음양(陰陽)관념의 기원은 매우 오래되었다. 처음에 이 개념들은 해가 비추는 것과 비추지 않는 자연의 현상을 가리켰다. 최초에 양(陽)은 햇볕이 드는 것 · 낮 · 해를 향하는 것 등을 의미하였고, 음(陰)은 햇볕이 들지 않는 것 · 밤 · 해를 등지는 것 등을 의미하였다. 즉 음과 양의 최초의 뜻은 철학적 의미가 없는 자연적인 개념이었다.

#### 2) 음양 개념의 최초 등장

이제 이 음양에 철학적 내용이 가미됨으로써 음양개념이 되는 과정을 보자. 서주(西周) 말기에 대지진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당시에 이 재난은 음양의 운행에 있어 그 질서가 바르지 못한 것 때문으로 인식되었다.

“양이 엮드려 나오지 못하고, 음이 묶여서 증발하지 못하여 지진이 발생하였다.”

“陽伏而不能出，陰迫而不能蒸，於是地震。”(『國語·周語上』)

국어(國語)의 이 기록은 음양이 이제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선 그 무언가의 의미를 가진 개념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첫 사례이다. 주(周) 대부(大夫) 백양보(伯陽父)는 음양을 “천지의 기(氣)[天地之氣]”로 보고, 그들의 운동변화를 자연변화의 원인으로 여겼다. 초기의 자연적인 음양현상이 변화하여 철학적 의미로서의 음양관념이 된 것이다.

철학적인 음양관념은 자연현상을 신비적, 미신적으로 파악하던 행태와 전통적인 상제(上帝) 및 귀신에 대한 신념을 배제하고, 자연 자체에서 그 변화의 원인을 파악해 낼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어느 정도의 과학적 관념이 미신적 관념을 대체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백양보(伯陽父)가 제기한 생각은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두 가지 상대 개념인

## 아이콘과 코드 - 동양미학의 범주 3강

음과 양이 변화의 원동력과 질서가 됨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대인들의 사유 수준이 한층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춘추시기의 음양

춘추(春秋)시대에 이르러 음양관념은 보편화되었다. 음과 양의 두 개념은 각종 자연 현상에 대한 해석에 있어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노(魯)나라 희공(僖公) 16년, 송(宋)나라에 다섯 개의 돌이 떨어지고 여섯 마리의 새가 날아가는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좌전(左傳)□의 기록이 다음과 같다.

“이는 음양 관계에 의한 자연변화일 뿐, 길흉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是陰陽之事，非吉凶所材也。”(『左傳·僖公16年』)

이 기록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춘추시대의 음양에 대한 개념은 천인감응(天人感應)의 색채에서 벗어나, 자연의 음양과 인간의 길흉은 무관하다는 쪽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시에 음양은 물질적인 “기(氣)”로서 단지 만물변화의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원인으로 받아들여졌다.

### 4) 도가의 음양관

선진(先秦)시대의 도가는 음양관념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노자(老子)는 모든 만물은 음양의 두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고 여겼다.

“만물은 음(陰)을 지고 양(陽)을 품는다.”

“萬物負陰而抱陽。”(『老子·42章』)

여기서의 음양은 기(氣)일뿐 아니라 만물에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 속성이라는 것이다. 이후 도가의 음양관념은 더욱 발전하였다. 음양은 상호작용을 하는데, 만물은 이러한 음양의 상호작용의 과정 중에서 발생하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사람 역시 이러한 작용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음양은 일종의 구체적 물질이고, 보편적 속성이

## 아이콘과 코드 - 동양미학의 범주 3강

며, 만물의 사이에서 그 변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후 이 관념은 우주로까지 확장되어 사용되었다.

### 5) 『역전(易傳)』에서의 음양

『역전(易傳)』에서의 음양은 우주의 근본규율이자 최고원칙이다.

“한번 음(陰)하고 한 번 양(陽)하는 것을 도(道)라 한다.”

“一陰一陽之謂道.”(『周易·繫辭傳上』)

이 기록에는 음양을 이기(二氣)로 간주하고, 우주에는 두 가지 상호 모순되는 힘과 속성이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서의 속성이란, 강한 것·동적인 것·뜨거운 것·위에 있는 것·밖을 향하는 것·밝은 것 등의 양(陽)의 속성과 부드러운 것·고요한 것·차가운 것·아래 있는 것·안을 향하는 것·어두운 것 등의 음(陰)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다.

자연계에서의 음양은 해와 달[日月]·산과 강[山川]·물과 불[水火]·하늘과 땅[天地]·추위와 더위[寒暑] 등이며, 사회에서의 음양은 귀하고 천한 것[貴賤]·지위의 높고 낮은 것[尊卑]·남자와 여자[男女]·임금과 신하[君臣]·아비와 자식[父子]·남편과 아내[夫妻]·삶과 죽음[生死]·이익과 손해[利害]·안전과 위험[安危]·다스려지는 것과 어지러운 것[治亂] 등이다. 이러한 사물과 개념에는 모두 음양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역전(易傳)』의 내용은 음양관념을 기반으로 천(天)·지(地)·인(人)을 망라한 우주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 6) 음양 범주 발전의 의미

음양 범주의 발전과정은 끊임없는 추상화의 과정이다. 『역전(易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구체적 물질과 연관되었던 음양은 점차 추상적 속성과 기능을 갖게 되어 우주의 보편원칙이 되었다. 중국철학에 있어서 음양은 줄곧 “기(氣)”와 연관되어 설명되었는데, 고대의 음양은 실물로서의 개념이 아닌 보편적 원칙으로서 중국의 철학사유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중국사상은 서구철학과는 달리 “무엇”보다는 “어떻게”에 더 큰 관심을 가지는데, 이는 곧

## 아이콘과 코드 - 동양미학의 범주 3강

실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사물의 속성과 기능에 더 큰 관심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음양관념은 이러한 사유를 가능하게 한 도구로서 중국철학에서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

### + 양강(陽剛)과 음유(陰柔)의 심미특징

- 양강: 웅혼 · 강직 · 통쾌 · 장엄 · 호방 · 비장

- 음유: 온유 · 완곡 · 유유자적 · 미려 · 요염 · 은근 · 함축 · 우아

### + 요내(姚鼐): 양강지미(陽剛之美)와 음유지미(陰柔之美)의 심미적 특징

- “천둥이요 번개 같다.[如霆, 如電]”: 글이 특출 나고 변화가 많다는 것.

- “계곡을 세차게 훑는 한 바탕 바람 같다.[如長風之出谷]”: 강건함을 말한 것.

- “우뚝한 산이요 깎아지른 절벽 같다.[如崇山峻崖]”: 힘 있는 필체를 가리킨 것.

- “터진 독으로 용솨음치는 물줄기 같다.[如決大川]”: 웅혼함을 말한 것.

- “튀어 오르듯 내달리는 천리마 같다.[如奔騏驎]”: 호방함을 표현한 것.

이러한 양강의 미는 사람들로 하여금 숭고함과 장렬함을 불러일으킨다.

- “아침 해가 막 떠오르는 것 같으며 혹은 노을 같다.[如升初日, 如霞]”: 눈부시게 아름다움을 말한 것.

- “청풍 같고 구름 같으며 안개 같다.[如淸風, 如雲, 如煙]”: 표일(飄逸)을 가리킨 것.

- “깊은 숲 속 굽이굽이 돌아가는 물길 같다.[如幽林曲澗]”: 우여곡절의 으늑함을 말한 것.

- “찰랑이고 일렁이는 물결 같다.[如淪, 如漾]”: 부드러움을 가리킨 것.

- “진주처럼 영롱하다.[如珠玉之輝]”: 우아함을 드러낸 것.

## 아이콘과 코드 - 동양미학의 범주 3강

- "기러기와 고니가 소리 한 번 길게 놓고선 텅 비어 끝없이 넓은 저 하늘 멀리로 날아가는 것 같다.[如鴻鵠之鳴而入寥廓]": 맑고 그윽함을 말한 것.

이러한 음유의 미는 사람들로 하여금 은은한 여운과 은근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 + 유관 미학범주

- 양강의 범주: 고고(高古), 웅혼(雄渾), 비장(悲壯)

- 음유의 범주: 표일(飄逸), 심원(深遠), 처연(淒然)

- 호방(豪放):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초탈. 시원스럽게 치달리는 웅대한 기백. "방(放)"이 극에 다다라서 자유자재로우면 "광(狂)"의 문턱을 넘어선다.

- 완곡(婉曲): 부드럽고 간지러움. 차분하게 가라앉음. 그러나 애처롭지는 않음.

- "비장(悲壯)": 비애나 감상(感傷)과는 다른 격(格). 슬프되 약하거나 애처롭지 않고 또 드러내지도 않음. 기개가 살아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지님.

- "처연(淒然)": 울적하고 쓸쓸하고 가여움으로 "안타까움"을 표현. 그러나 절망이나 소멸은 아님. 경우에 따라 은연중의 생기(生氣)를 함축.

- "고고(高古)": 시공을 초월하는 보편적 항상성["古"]을 담고 있기에 높고 맑고 빼어날["高"] 수 있음.

- 표일(飄逸): 다분히 도가적 색채. 떠나온 곳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으며, 얽매이는 것이 없으니 울 것도 웃을 것도 없음.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는, 웃음인지 절규인지도 모를, 그리곤 흐드러지다 사라져버리는 유쾌함.

\* 청(淸) · 고봉한(高鳳翰), 「서정시사도(西亭詩思圖)」



## 아이콘과 코드 - 동양미학의 범주 3강

= 벽오동(碧梧桐): 봉황이 깃드는 나무. 중국의 전설에 의하면 봉황은 벽오동나무에서 등지를 틀고 몇 십 년에 한번 꽃을 피워 열매를 만드는 대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침이슬에 고인 맑은 샘물을 마시며 살았다고 하니, 출세를 상징하는 전설속의 새가 바로 봉황이었고 그 봉황이 기거하는 나무가 벽오동.

- 뜻에 맞은 친구, 혹은 밝은 세상을 기다린다는 뜻.

= 파초(芭蕉): 잎이 퍼져 옆으로 누우면 가운데 심지에서 바로 새 잎이 밀고 나오는 것에 빗대,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가짐도 늘 이렇듯 중단 없는 노력과 정진을 해야 함을 뜻한다.

- 끊임없이 새 잎을 밀고 올라오는 자강불식(自彊不息)의 정신을 상징.

“파초의 심이 다 오르면 새 가지를 펼치니, 새로 말린 새로운 심이 어느새 뒤따른다. 새로 오르는 심이 새 덕 기쁨을 배우고자 하니, 새 잎 따라서 새 지식이 생겨나리라.”

“芭蕉心盡展新枝，新卷新心暗已隨。願學新心養新德，旋隨新葉起新知。”(宋·張載，「芭蕉詩」)

\* 강유(剛柔) 결합: 원(元)·조옹(趙雍), 「청영홍심도(靑影紅心圖)」

(1) “청영(靑影)”은 음유, “홍심(紅心)”은 양강: “청유함방(靑幽含芳)”

(2) “돌”은 양강, “난죽의 흐드러진 잎사귀”는 음유

(3) “난·죽의 의미”는 양강, “흐드러진 형태”는 음유